

보도시점 2023. 6. 20.(화) 06:00 (화요일 석간) 배포 2023. 6. 16.(금)

고농도 오존 관리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전략 도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고농도 오존의 지역별 원인 및 영향 진단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워크숍)를 6월 2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오존은 햇빛이 강할 때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오존 연평균 농도* 및 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오존 연평균 농도(ppm) : '15년 0.027 → '17년 0.029 → '19년 0.030 → '21년 0.032

** 오존 주의보(0.12ppm 이상) 발령 일수 : '15년 34일 → '17년 59일 → '19년 60일 → '21년 67일

이번 연찬회에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오존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며,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 주제발표는 △권역 간 수송에 의한 오존 대기질 악화 사례, △고농도 오존 대응을 위한 생물기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관리, △오존관리를 위한 기후-대기환경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구성되며, 2부 지정토론에서는 정책담당자와 분야별 연구자들이 고농도 오존관리를 위한 집중연구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농도 오존 관리를 위해서는 고농도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오존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고농도 오존 관리 연구 방향 논의 전문가 워크숍 개요.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32-560-7253)
		담당자	연구관	김지영 (032-560-7266)



□ 추진배경

- 오존 농도 및 고농도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한 지역별 원인·영향 진단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집중연구 방향 논의 워크숍 개최
- ※ (환경부) 오존 고농도 발생시기(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추진 중

□ 개 요

- (일시 및 장소) '23. 6. 20.(화) 14:00~16:30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2&3호실
- (참석자)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강웅 교수, 강원대학교 곽경환 교수, 부경대학교 손윤석 교수, UNIST 송창근 교수, 인하대학교 조석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용표 교수 등 관련 분야 연구자 등 50여 명

□ 세부 일정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0~14:10(10')	개회 및 인사말씀	유명수 부장
14:10~15:15 (80')	주제발표	좌장: 박정민 과장
14:10~14:30 (20')	권역 간 수송에 의한 수도권 풍하 지역의 오존 대기질 악화	곽경환 교수
14:30~14:50 (20')	고농도 오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BVOCs 관리 실태 및 나아갈 방향	손윤석 교수
14:50~15:10 (20)	기후-대기환경 통합적 접근: 오존	송창근 교수
15:10~15:30 (20')	질의응답	-
15:30~15:45 (15')	휴식	-
15:45~16:15 (30')	지정토론 - 송석섭 서기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조석연 교수(인하대학교) - 김용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좌장: 이강웅 교수
16:15~16:30 (15')	종합정리 및 폐회	

- 질소산화물(NO_x) :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공기중 질소(N₂)가 분해되어 생성되며 공기 중 주요한 형태는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 등이 있음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대기중에 휘발되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물질이 이에 해당